

韓國經濟의 非生産的인 部門에 관한 實證研究*

李 兌 洙**

< 目 次 >

- I. 序 論
- II. 非生産的 部門과 現代資本主義
- III. 生産的, 非生産的 部門의 구분 및
이용자료의 검토
- IV. 非生産的 部門에 관한 實證分析
- V. 結 論

I. 序 論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은 그 특성 및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서 生産的 勞動과 非生産的 勞動을 구별하여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학설사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社會的 富의 源泉이 무엇이나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노동의 개념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각기 다양하게 도출되어져 왔다.¹⁾

* 이 글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가운데 3장 및 4장의 일부이며, 또한 '93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1993. 2. 개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하여주신 익명의 논평자와 인하대학교의 윤진호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글에 있을 지 모르는 오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延世大學校

1) 생산적 노동의 개념은 A. Smith에게서는 國富 創出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각에서, 이후 K. Marx에게서는 자본주의하에서 착취의 본질을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각기 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대한 고전학파내에서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阿部照男(1987), 拙稿(1991)를 참조할 것.

이러한 가운데에 生産的 勞動에 관한 이전까지의 논의를 종합비판하고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그것이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도구로 등장시킬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사실 이들 노동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의 剩餘價値率 및 利潤率의 계산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²⁾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와의 차이를 다루는 경우 사회주의 경제하에서의 생산적인 노동의 재해석을 위한 논쟁의 형태를 띠고 논의되기도 하였고,³⁾ 家事勞動에 대한 생산적인 노동으로서의 위상설정을 위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특성을 究明하려는 시도 가운데서 특히 비생산적인 노동, 비생산적인 부문이 경제성장의 둔화추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바야흐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적, 비생산적 부문이 갖는 성격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동향을 배경으로 韓國經濟가 지니고 있는 특성의 일면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목적이다.

흔히 한국경제는 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80년대 들어 구조적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80년대 중반 한때는 대외적으로 국제수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대외종속적인 일면을 해소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대내적인 경제구조의 재편이 진행되는 것도 같았으나, 다시 '위기의 한국경제'론이 등장하면서 일시적인 외부조건의 호조에 따른 경제성장의 추진력은 둔화되는 조짐이 완전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이같은 不安定性, 構造的 脆弱性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이론적 단초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모색 과정에서 本稿는 지금까지 현실경제의 적극적인 분석개념이 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훈고학적인 논쟁거리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分析用具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가는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

2) 주지하다시피 剩餘價値率은 잉여가치와 가변자본의 비율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 = \frac{S}{V} = \frac{n_p h_p - n_v v}{n_p v} = \frac{h_p - v}{v}$$

(단, n_p 는 생산적 노동자의 수, h_p 는 생산적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 v 는 노동력 가치)

따라서 생산적 노동자의 범주가 어떻게 정의되는가는 잉여가치의 양 및 잉여가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산적 노동자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려면 拙稿(1992-1)를 참조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는 飯盛信男(1985), 43-63面 참조

에 관한 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 부문이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려 한다.

II. 非生産的 部門과 現代資本主義

1. 비생산적 부문에 관한 현대적 이론의 검토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이 있어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은 고전학과 맑스에 의해 강조되었었지만, 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장을 연 것은 P. Baran & P. Sweezy(1966)의 연구성과를 꼽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J. F. Becker(1977), A. Shaikh(1978; 1982), E. Wolff(1987), F. Mosley(1988) 등에 의하여 각기 생산적, 비생산적 부문의 연구가 발전되었다.

특히 Becker(1977)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하에서의 비생산적인 부문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비생산적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부문은 유통 및 금융으로 이들은 ‘市場經濟에 必須的이면서도 생산에는 補助的인’ (absolutely indispensable within the market economy but auxillary to production proper)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보조적 기능은 분명히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생산적인 부문의 종사자들—예를 들면 농부, 목동, 공장노동자, 생산수단의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 및 생필품생산에의 종사자들—의 활동과는 구별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생산적인 부문의 생산물은 前者인 보조적인 부문으로 일정부분이 돌려지게 되어 생산적인 부문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베커에 의하면 이러한 비생산적인 부문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자본축적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유통자본이 자본의 회전을 단축시켜줄 때 그로 인한 자본축적율의 상승효과 즉, 금융 및 통신, 수송, 보관 등의 기능이 발전되면서 이윤률의 하락을 둔화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原型인 영국의 성장과정에서도 입증된다. 하지만,

“...비생산적인 노동은 비생산적으로 남는다. 유통의 확대가 갖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측면들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유통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화폐의 형태로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문제는 소위 거시적 또는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더욱 어렵게 된다.”⁴⁾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비생산적인 노동의 결과는 실현의 문제를 낳게 되어 1930년대의 공황과 같은 현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였고, 그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의 안정화정책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베커의 이러한 견해는 스위지와 바란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비생산적 노동을 중심개념으로 한 접근들이 주로 공급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수요의 측면을 중시하여 그것을 생산적, 비생산적 성격으로 이분함으로써 前者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기여하지만, 後者は 단기적인 이윤률 하락 추세에 대한 反轉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資本主義의 衰落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價值와 價格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이다. 즉 베커 역시 비생산적인 소비의 원천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부문에서 공급된 잉여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잉여물이 현실적으로 곧바로 價值範疇에서 價格範疇로 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차원이 다른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비생산적인 소비가 경제성장과 맺는 연관관계에 있어 단기적인 이윤률의 하락과 반전에 대한 명료한 메카니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생산적인 소비가 일단 존재하자마자 경제가 수축되는 이론전개에 있어서 그는 비생산적인 지출이 단기적으로 이윤률의 하락을 반전시킨다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成長趨勢의 鈍化-回復-鈍化-...’라고 하는 순환적 메카니즘의 논리적 구축이 좀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Wolff(1987)는 자신의 2부문모형을 통하여 비생산적 부문이 증대할 경우 “산출물의 증가, 자본축적, 노동생산성의 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대한 극한값은 솔로우(R. M. Solow)의 1부문 모형에 있어서의 定常狀態下 均衡值

4) Becker(1977), p.77.

보다 낮아 비생산적인 활동은 산출물과 생산성, 실질임금의 증가를 억제한다”⁵⁾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월프의 이러한 시도는 비생산적 부문이 가져올 경제 성장에의 영향력에 관하여 가장 정교한 논리적 구조를 구축케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미국경제하에서도 비생산적인 부문의 시계열추세가 월프가 말하는 장기적 결론을 검증해볼 만큼 확보되지 않는 탓인지 충분한 기간에 걸쳐 자신의 결론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장기침체를 보인 80년대 전후의 시기까지는 統計分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비생산적인 부문을 고려한 미국경제의 설명에 한계를 갖고 있다.⁶⁾

2. 現代資本主義하의 비생산적인 부문 증대의 필연성 및 그 의의

위에서 대표적인 논자들의 주장을 통하여 보았듯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는 비생산적인 부문의 증대는 일반적 경향이며, 후술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70년부터 1987년에 걸쳐 民間消費支出이나 固定資本形成 등의 수요측면이나 공급측면에서 모두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은 증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이 증대하는 원인은 진정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가게와 기업, 정부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家計의 차원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비생산자 계층 등으로 각각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독점이윤의 재투자를 끊임없이 수행하고자 독점자본가들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소비행태를 유도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경향은 비생산계층의 선도적인 역할하에 시작되어 자본가와 일반 노동자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 이로써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소비가 고착되며 사회전체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의 활성화와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

5) Wolff(1987), pp.102~103

6) 徐翰錫(1991)을 참조할 것.

둘째, 企業의 입장에서는 경쟁의 본격화와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실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기술진보와 생산성증대에 더욱 힘쓰는 한편, 광고와 마케팅, 금융조달 등을 통하여 가급적 가치실현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배제하려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기업이 비대화되어 자본의 유통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광고와 마케팅, 금융, 사업서비스 등으로의 자원의 배분이 사회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비생산적' 부문이 확대되는 것이다.

세째, 현대사회에서 政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군사 및 경찰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도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증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생산적인 부문에 공공재의 형태 등으로 참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에 의한 일반행정비 및 각종 관료조직을 위한 비용지출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지출로 분류되기에 충분하고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이것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부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에서도 비중증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Mosley(1988) 등이 지적하듯이 비생산적인 부문은 노동생산성이 생산적인 부문보다 낮은 관계로 생산적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인 고용의 증대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둘째로는 이들 부문이 비교적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도 비중증대의 원인이며, 세째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확대로 중간투입물로서의 서비스부문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인 부문은 현대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그 비중이 증대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론 '一般的'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그 反作用이 지배하여 감소 내지 정체되는 경향이 혼재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증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생산적인 부문의 활동은 사회의 잉여물생산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겠는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기본동력이 資本의 擴大再生産을 통한 잉여물의 생산이라고 할 때 비생산적인 부문의 이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생산적인 활동이 증대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잉여생산물이 증대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출의 원천이 되는 것은 사회의 잉여생산물 가운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투자를 제외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가변자본 부분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 임금의 감소에 의해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때, 비생산적인 부문은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투자를 위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잉여의 생산 증대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갖는다.⁷⁾

결국 비생산적인 부문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되어 비생산적인 부문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逆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⁸⁾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이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은 필연적으로 증대하며 그것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기여함을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여 볼 것이다.

Ⅲ. 生産的, 非生産的 部門의 구분 및 이용자료의 검토

1. 生産적, 비生産적 部門의 구분

본고에서는 이제 비생산적인 부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본다. 즉 이 부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용가치를 생산하여 사회적 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生産된 價値物의 流通이나, 分配, 處分 등에 관계하거나 또는 이미 창출된 잉여물에 의하여 그

7) 이는 바란과 스위지가 자본주의하에서 비생산적 부문이 증대하는 것은 資本家階級의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實現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견해와는 다르다.

Wolff(1977)는 “非生産的인 活動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장애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적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剩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비생산적인 활동은 경제에 있어서 잉여의 상대적인 몫을 증대시키지만 그것은 생산적인 자본가(생산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자본가-필자)에 의하여 처분가능한 몫을 감소시키고 따라서(생산적 부문의) 자본확대를 위한 몫을 줄여버린다.”라고 언급하여 비생산적인 부문이 생산적 부문의 資本蓄積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8) 그러나 이때 한가지 해결해야만 할 과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가치와 가격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轉形問題에 연관되는 이유는 애초에 생산적, 비생산적인 부문이 구분되는 기준은 그것이 가치의 생산에 대한 기여유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전개한 비생산적인 부문과 국민총생산과의 역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가격법주의 논의가 되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치와 가격이 근본적으로는 피리가 없다는 명제를 채택해야 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후의 본격적 연구과제로 남긴다.

것들을 소비하며 존재하는 부문을 일컫는다.⁹⁾

그러나 이 정의가 物質的 商品의 생산 영역만을 포함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부문 모두가 '비생산적'이 되고 말기 때문에 '서비스부문=비생산적 부문'이란 단순한 도식으로 회귀하고 만다. 물론 서비스 부문은 대개 소비과정에 개입되어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생산보다는 소비과정에 더 가까운 분야가 많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도 그것이 담당하는 사회적 생산구조 내에서의 기능에 의하여 각기 상이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이 시도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부문의 분석은 단순히 서비스산업을 모두 寄生的, 非生産的이라고 취급하는 기존의 일부 분석과는 다르며,¹⁰⁾ 그 이상의 분석적인 여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¹⁾

한편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은 어떤 유형의 노동이라 하더라도 '생산적'일 수 없다. 그렇다고 생산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이 모두 생산적인 노동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적인 노동의 가장 본질적 특징은 자본-임노동관계에 편입된 노동으로서 자신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하여 사회적 소득의 원천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적인 부문의 종사자들 가운데 임노동 관계로 고용된 노동자들을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가족종사자가 그 전형적인 경우이다)은 비생산적인 노동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가치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은 잉여부분을 창출하지는 못하므로 생산적인 노동자들 만큼 사회적 생산의 증대에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이 된다.

9) 本考에서는 비생산적인 부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使用價值와 剩餘價值의 두 기준 가운데에 사용가치의 기준을 주로 한다. 만일 잉여가치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중을 모든 산업에 걸쳐 정확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통계 여건상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착취에 입각한 기준보다는 國富의 원천으로서의 생산적 부문에 대칭되는 비생산적 부문을 통하여, 일국경제의 내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GNP 등의 주요 경제지표의 동향과 그것이 갖는 관계를 해명하려 한다.

10) 그 대표적인 예가 戶田愼太郎(1979), 75-100面이다. 그는 "자본주의하의 제3차산업의 증대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 대부분이 社會體制的 寄生化, 腐敗化 및 無政府的 競爭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특징이다"라고 주장한다.

11) 서비스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도 오랜 논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특히 벨(D. Bell) 이후 '後期産業社會'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서비스산업의 긍정적 역할은 더 한층 강조되고 한편 반대로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재화의 중요성이 부활됨을 강조하는 이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는 Delaunay and Gadrey(1992) 참조.

〈表 1〉 생산적, 비생산적인 영역의 구분

	생산적 부문	비생산적 부문
생 산 적 노동	'생산적'	'비생산적'
비생산적 노동		

따라서 價値를 創出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적, 비생산적 부문의 구분이, 그리고 剩餘價値를 창출하는 資本家에 의한 雇傭勞動이나 아니냐에 따라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행해지고 이 두가지의 구분법이 교차함으로써 자본주의하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의 창출은 생산적 부문의 생산적 노동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논자들은 직종상의 분류법에 의해 생산적, 비생산적인 노동자를 구분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肉體勞動者를 생산적으로, 精神勞動者를 비생산적으로 분류하게 되는 등 매우 도식적인 이분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자본주의의 복잡한 직종과 계층의 분화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함의가 떨어진다. 또한 실제로 확보가능한 통계가 직종별, 산업별 소분류의 형태로 구비되어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분석상의 명백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부문과 비생산적인 노동을 정의하면 「産業聯關表」에 나오는 산업들이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表 2〉『산업연관표』상의 산업에 대한 생산적,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구분

生産的 部門	非生産的 部門
농업(1,2,3)	도소매(51)
임, 수산업(4,5)	숙박(52의 일부)
광공업(6-45)	금융 및 보험(55)
전력 및 가스, 수도(46-48)	부동산(56)
건축업(49,50)	사업서비스(57)
음식업(52의 일부)	공공행정 및 국방(58)
운수 및 보관, 통신(53,54)	사회서비스(61)
교육 및 연구(59)	대개인 및 가사서비스(62)
보건, 사회복지(60)	가계의 소비지출(64)
오락 및 문화서비스(62)	
사무용품(63)	

주 : 괄호안은 『산업연관표』상의 65통합부문에 따른 산업분류 번호

이러한 산업의 분류와 함께 피고용 유무에 따라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인 노동으로의 분류를 교차시킴으로써 일국경제내의 재화 및 용역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순전히 시장에서 가격으로 평가되어 거래된 현상적인 것만의 파악이 아닌 그러한 거래의 원천이 되는 가치의 창출과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영생산물의 전이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2. 『산업연관표』의 재해석

오늘날 산업과 산업의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흔히 이용되는 『산업연관표』는, 비생산적인 부문이 생산적인 산업부문과 갖는 관계 및 각 산업별 투입, 배분 면의 현황에 관한 가장 상세한 통계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노동량에 의한 상품가치의 결정이나 부문별 勞動과 資本에 대한 吸收(absorption)度を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문의 특징을 밝히려는 이 글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유용한 통계표라 할 수 있다.

〈그림 1〉 비생산적인 부문을 고려한 산업연관체계

A_{pp}	A_{pu}	CW_p	CS_p	Ing_p	G_p	R_p
A_{up}	A_{uu}	$Y_u=CW_u+CS_u+Ing_u+G_u+R_u$				
W_{pp}	W_u					
W_{up}						
RC_p	RC_u					
RnC_p						
D_p	D_u					
T_p	T_u					

단 A : 중간투입물

Cw : 노동자의 소비지출

Cs : 잉여소득에 의한 소비지출

Ing : 민간고정자본형성

G : 정부지출

R : 재고변동과 무역수지의 합

W : 피용자보수

Rc : 자본주의적 생산부문의 영업잉여

Rnc : 비자본주의적 생산부문의 영업잉여

D : 감가상각

T : 조세

Yu : 비생산적인 소비지출

下添字 p, u : 각기 생산적, 비생산적인 부문을 일컬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함에 앞서 생산적 노동론에 입각했을 때 요구되어지는 몇가지 변용된 체계 및 의미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연관표』를 생산적인 부문과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재구성하면 위의 <그림 1>과 같다.¹²⁾

<그림 1>에서 부가가치의 총합(VA), 최종산출물(FPc), 그리고 총산출물(TPc) 등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VA=W+Rc+Rnc+D+T$$

$$FPc=Cw+Cs+Ing+G+R$$

$$TPc=A+Cw+Cs+Ing+G+R$$

그러나 가치는 정의상 생산적인 부문의 생산적인 노동에 의해서만 생산되므로 엄격히 말하면 위의 그림에서 좌측의 수직열과 상단의 수평열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생산적인 노동의 개념에 충실할 때 최종산출(FP), 총산출(TP), 가변자본(VC), 잉여가치(SV)는 다음으로 수정된다.

$$FP=Cw_p+Cs_p+Ing_p+G_p+R_p$$

$$TP=A_{pu}+Cw_p+Cs_p+Ing_p+G_p+R_p$$

$$VC=W_{pp}$$

$$SV=A_{up}+W_{up}+Rc_p+Rnc_p+D_p+T_p$$

이와 아울러 통계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연관표』의 통합과 불변화작업도 시도하였다. 따라서 1970,73,75,78,80,83,85,86,87,88년도에 이르는 10개년도 『산업연관표』를 재정비하였다.¹³⁾

12) 丁聲鐸(1990)도 이와 유사한 산업연관체계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성진과의 차이는 「투입-산출표」의 배분에 관한 분류가 본고의 <그림1>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丁聲鐸은 주로 생산 측면에 따른 구분을 행했고, 여기서는 수요 측면에 따른 구분이 추가되었다.

13) 朴堉卿, 金政鎬(1990)에 의하여 산업연관표의 불변화작업이 시도되었으나 이것은 생산적, 비생산적 부문의 구별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계정』에서 각년도의 산업별 GNP 換價指數를 구한 다음, 수출입 물가지수와 환율로 해외항목을 조정, 불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관자료의 미비는 1970, 73년의 불변화를 어렵게 만든다.

Ⅳ. 비생산적인 부문에 관한 실증분석

1. 통상적인 국민계정체계에서의 변화 추이

앞에서 통상적인 국민계정체계와 생산적 노동론에서 보는 순가치체계 사이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통상적인 국민계정체계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의 변화 양상을 산출과 소득의 흐름 및 고용의 측면에서 각기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이 소비지출 및 자본형성, 총생산, 총수요, 고용 등에서 1970년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表 3〉 需要側面の 각항목에 있어서의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추이

(단위: %, 經常價格 基準)

구 분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5	1987
중간수요	17.3	16.1	13.8	16.0	14.6	14.7	15.8	16.5
민간소비지출(Cw+Cs)	21.6	21.8	19.6	20.1	21.9	21.2	26.2	28.1
민간고정자본형성(Ing)	4.7	5.3	6.5	7.4	6.7	5.7	6.5	6.2
정부소비지출(G의 일부)	54.3	51.9	78.4	44.1	76.6	75.9	73.4	73.6
정부고정자본형성(G의 일부)	0.9	1.2	1.8	1.9	0.9	0.8	0.7	0.9
수출(R의 일부)	7.6	6.4	7.6	7.7	7.7	7.7	7.5	8.3
최종수요(FPc)	18.9	17.0	17.8	16.2	19.6	19.1	20.3	20.5
총수요(TPc)	18.2	16.6	15.9	16.1	17.0	16.8	18.0	18.5

수요 측면에서 볼 때,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생산적인 부문은 소비지출면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민간소비지출 중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은 70년대 중반 이후 약간의 감소추세를, 80년대 들어 답보상태를 거친 후 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소비지출행태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현상을 수반하여 전체적으로 비생산적인 소비지출이 1970년에서 1987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신장한 것을 알 수 있다.

資本蓄積을 보여주는 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도 비생산적인 부문의 고정자본형성이 생산적인 부문의 그것에 비하여 그 비중을 조금씩 증가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民間消費支出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최종수요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의 종합적인 결과는 70년대 후반까지는 저하경향을 보이다가 80년대가 되면서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주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크므로 그 항목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中間需要는 70년대 중반이후 1983년까지도 비생산적인 부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1985년 이후에 와서야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생산적인 부분의 생산물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수요되는 부분(A_{up})과 비생산적인 부분의 생산물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수요되는 부분(A_{uu})은 각기 상승하는 일면도 있으나 나머지 부분의 변화가 교란을 일으켜 결과적으로는 중간수요의 변동이 위와 같이 나타난다.

〈表 4〉 非生産的 部門의 投入面의 비중

(단위 : %, 經常價格 基準)

구 분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5	1987
중간투입	10.9	9.4	10.6	10.1	12.6	13.2	13.7	13.9
비용자보수	29.6	27.4	28.2	28.9	28.9	28.5	28.2	28.0
영업 잉여	31.1	33.2	33.8	33.4	38.7	33.1	35.9	37.2
부가 가치	29.2	29.4	28.7	28.8	30.2	28.0	29.6	30.5
총산출	20.8	19.5	18.5	18.8	19.7	19.2	20.3	20.8

〈표 4〉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분의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報酬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대조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에 진출한 기업의 營業剩餘는 1970년 31.1% 에서 1987년 37.2%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불황기라 말하여지는 1980년에 38.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기업잉여의 1/3 이상을 이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릴 여지를 보인다. 또한 이 부분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표 5〉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노동자 유입(L_u)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결합하여 해석할 때 이 부문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表 5〉 雇傭 側面의 비중변화

(단위 : %)

구 분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5	1987
1. L_{pp}	33.6	36.7	38.9	43.6	41.5	42.6	43.8	44.4
2. L_{pu}	48.1	44.2	38.0	34.2	30.2	28.1	25.9	25.5
3. L_u	18.3	19.1	23.1	22.2	28.3	29.3	30.3	30.1
4. $L_{pu}+L_u$	66.4	63.4	61.1	56.4	58.5	57.4	56.2	55.6

주 : L_{pp} 는 생산적인 부분의 생산적 노동자. L_{pu} 는 생산적인 부분의 비생산적 노동자, L_u 는 비생산적인 부분의 총 종사자, 따라서 비생산적인 노동자의 전체 수는 $L_{pu}+L_u$.

있다. 또한 총산출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년대 이후 하락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노동집약의 여지가 커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듯 한국경제에서의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비중의 추이는 1970년 부터 1980년대 1987까지 중간수요, 총수요, 피용자보수, 총산출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걸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월프의 분석과 비교하더라도 경제수준의 격차를 염두에 두면 비생산적인 부문의 증가추세가 약한 것은 아니다.¹⁴⁾

그러나 지적해야만 할 사실은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피용자보수, 부가가치, 총산출 등에 있어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은 이미 1970년에 고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70년대를 거쳐 그 비중이 축소되다가 80년대에 들어서 다시 비중이 상승하여 분석의 최종연도인 1987년까지 이어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세부항목의 분석에서 명료해지지만 1970년까지는 아직도 저개발국의 전형적인 양태인 도소매 등 流通業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여 있어 이미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은 심대하였으나, 이것이 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걸쳐 생산적인 부문의 확대로 전이되었고, 80년대 중반부터 다시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으로 바뀌는 과정을 밝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非生産的인 部門 内の 構成 上の 變化

그렇다면 고용과 산출면에서 볼 때 비생산적인 부문 내의 구성비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떤 부문이 상대적으로 더욱 비중이 강화되어 왔는가를 보기로 하자.

GDP상의 비중을 보면 도소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현격히 줄어서 비생산적인 부문의 전체 생산액 가운데 반을 차지하던 것이 3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감소했다. 특히 1980년에 그 비중은 현저히 감소했고 이는 숙박,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부동산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한 것임을 <표 6>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물론 1970년과 비교했을 때 대개인 및 가사서비스, 가계외 지출을

14) 월프의 분석결과 중 비슷한 시기인 1963-1976년 사이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고용에 있어 34.2%에서 38.1%로, 임금에 있어서 30.8%에서 32.9%로, 영업잉여는 36.8%에서 46.8%로, 그리고 총산출에서의 비중은 23.7%에서 25.0%로 각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외하고는 일정정도 비중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表 6〉 비생산적인 부문의 GDP상의 구성비

(단위 : %, 經常價格)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5	1986	1987	1988
도소매	47.3	(52.3)	44.0	44.4	35.9	33.5	32.2	32.9	33.7	32.6
숙박	1.5		1.8	2.0	2.0	1.8	1.9	1.8	2.1	2.1
금융 및 보험	6.7	6.6	7.7	9.3	11.4	9.4	10.7	11.4	11.3	12.5
부동산	10.1	9.5	9.3	12.3	11.7	13.0	15.4	14.3	14.4	14.0
사업서비스	4.8	5.0	5.0	5.4	7.1	7.8	9.2	9.4	10.1	10.5
일반행정, 국방	13.4	10.9	17.8	10.5	18.6	19.5	16.0	16.3	15.4	15.7
사회서비스	0.7		1.2	1.2	1.3	1.4	1.5	1.2	1.3	1.5
대개인 및 가사 서비스	6.5	6.4	5.0	6.3	4.8	5.6	5.3	5.2	4.7	4.4
가계의 지출	8.9	9.4	8.1	8.5	7.3	8.0	7.9	7.5	6.9	6.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 안은 도소매와 숙박의 합산임.

이러한 산출면의 비중변화는 거의 70년대에 구성비가 결정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커다란 비중의 변화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산업연관표』의 「고용표」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전 기간에 걸쳐 고용 구조와 대비시키지는 못하지만 〈표 7〉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고용면에서도 80년 이후에만 국한하여 볼 때 안정된 구성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비생산적인 부문이 고용과 산출면에서 비중이 증대하게 된 것은 생산면에서는 숙박,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이 비생산적인 부문의 평균 성장속도를 상회하여 발전했기 때문이고, 고용면에서는 부동산,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이 비생산적인 부문에서의 고용증대경향을 이끈 것으로 보여진다.

3. 最終產出物의 構成 上 變化

최종생산물을 구성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민계정에 의하면 노동자의 소비지출(Cw), 잉여소득에 의한 소비지출(Cs), 민간고정자본형성(Ing), 정부지출(G), 재고변동 및 무역수지의 합계(R)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의 변동을 보면 〈표 8〉과 같다.

여기서 노동자의 소비지출은 1975년의 31.1%에서 이후 1980년에 상승한 다음 1987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서 1975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반면에 잉여소비지출은 1978년에 상승한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정자본의 형성은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며 정부지출도 그 비중이 증대한 뒤 줄곧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수지의 흑자에 힘입어 재고변동 및 무역수지의 합계는 하락하다가 급속한 비중의 증대가 이루어져 1987년에는 최종산출의 10%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같은 통상적인 국민계정상의 체계로는 더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表 7〉 비생산적인 부문의 고용상의 비중

(단위 : %)

비생산적 부문	1980	1983	1985	1986
도소매	52.4	52.5	52.5	51.5
숙박	2.5	2.6	2.5	2.1
금융 및 보험	7.8	7.9	6.8	7.3
부동산	3.7	4.4	4.7	4.3
사업서비스*	5.9	6.1	6.3	6.5
일반행정, 국방	13.2	11.9	11.9	12.4
사회서비스	2.7	2.6	3.0	2.8
대개인 및 가사 서비스	11.9	12.1	12.2	12.4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농업서비스와 운수관련서비스는 성격상 사업서비스와 유사하므로 이에 포함.

〈表 8〉 最終産出物の 구성

-비생산적인 부문을 분리하지 않았을 때

(단위 : %, 1980년 기준 불변가격)

구성항목	1975	1978	1980	1983	1985	1987
Cw	31.1	29.7	34.0	32.1	31.7	31.4
Cs	34.6	35.4	32.5	30.0	29.0	24.3
Ing	22.9	27.0	25.6	27.8	25.4	22.8
G	17.6	18.1	18.5	16.1	14.9	12.5
R	-6.3	-10.1	-10.6	-5.8	-0.9	9.1
FP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러므로 이것을 생산적인 부문과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특히 비생산적인 지출이 가져오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보면, 우선 〈표 9〉에서 보듯이 Cs_p , Ing_p , G_p , R_p 등의 구성비는 절대적으로 다르지만 비중의 증가나 감소 추세에 있어서는 동일한 형태를 띠며 오히려 더욱 선명한

여지를 갖는다. 그런데 Y_u 가 생산적인 부분들의 구성요소와 갖는 상관성을 생각할 때 자본형성(Ing_p)과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Y_u 가 1975년의 26.0%에서 78년 22.9%로 하락할 때, 생산적인 부분의 투자는 늘어났으며, Y_u 가 1980년에는 27.4%로 크게 상승하자 Ing_p 의 비중은 하락한다. 이후에도 Y_u 는 Ing_p 와 반대방향으로 그 비중의 추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2>, <그림 3>에서 각기 잘 나타나고 있다.

〈表 9〉 最終産出物の 구성 - 비생산적인 부분을 분리했을 때 (단위: %, 1980년 기준 불변가격)

구성항목	1975	1978	1980	1983	1985	1987
Cw_p	24.2	23.4	26.5	25.3	23.5	22.7
Cs_p	26.9	27.8	25.3	23.6	21.4	17.5
Ing_p	21.4	25.0	23.8	26.2	23.8	21.3
G_p	8.8	12.7	9.4	8.3	8.0	7.0
R_p	-7.2	-11.9	-12.4	-8.0	-2.7	6.3
Y_u	26.0	22.9	27.4	24.5	25.9	25.3
FP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9〉 總産出物の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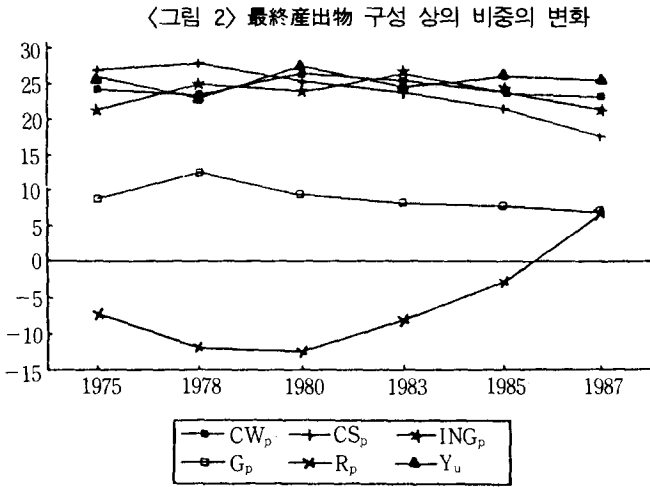
(단위: %, 1980년 기준 불변가격)

구성항목	1975	1978	1980	1983	1985	1987
Cw_p	29.3	27.8	31.3	28.6	27.0	25.9
Cs_p	32.5	33.1	29.9	26.7	24.7	20.0
Ing_p	26.0	30.0	28.2	30.0	27.4	24.3
G_p	10.6	15.1	11.1	9.3	9.2	7.9
A_{pu}	10.3	8.5	14.2	14.9	14.7	14.7
R_p	-8.8	-14.1	-14.6	-9.0	-3.1	7.2
TP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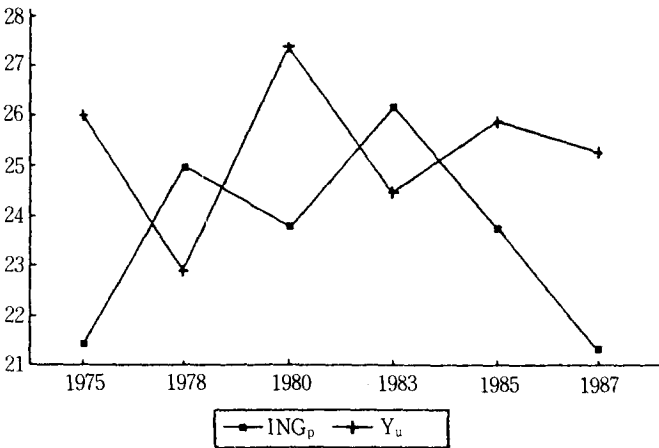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純價値體系에 의한 총산출의 구성비 추이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 즉 <표 9>에서 처럼 純價値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소비되어 버리는 생산적인 부분의 생산물인 A_{pu}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도 CW_p , Cs_p , G_p 등은 비교적 단순한 비중상의 변동을 보이고 중국에는 모두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Ing_p 와 A_{pu} 는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완전히 逆의 關係라고 할 수는 없으나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소비된 생산물의 비중은 시간에 걸쳐 하락하다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적

인 부문의 자본축적은 시간에 걸쳐 증가하다가 하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적인 부문의 자본축적이 비생산적인 부문의 소비지출에 의해 역으로 기능하는 것은 생산적인 부문에서 창출되어 나온 가치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이전되어 다시 비생산적인 용도로 투입됨에 따라 생산적 부문에 형성될 固定資本이 자연히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그림 3〉 생산적 자본형성(Ing_p)과 非生産的 支出(Y_u) 비중 변화의 역관계



4. 비생산적인 부문의 성장과 GNP의 성장

〈표 11〉에서 특히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지출인 Y_u 는 통계를 산출한 5개 년도동안 그 구성비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해당기간의 GNP변화와 어떤 연관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I장과 앞절의 분석을 기초로 할 때, 非生産的인 部門으로의 支出增大는 그 부문의 특성상 가치의 창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부의 형성에 기여하는 생산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生産的인 部門으로의 資本形成과 相衡關係에 있음으로 인해 더욱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잠식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는 GNP의 上昇幅을 鈍化시킨다는 假說이 가능하다.

〈表 11〉 비생산적인 부문의 지출액 비중(Y_u)과 GNP 총액
(단위 : 10억원, 1980년 기준 불변가격)

연도	비생산적인 지출	GNP
1975	6316.6	37143.3
1978	8002.6	50645.6
1980	10212.8	52260.8
1983	11662.7	66803.0
1985	15078.6	78088.0
1987	18605.4	99611.6

〈表 12〉 비생산적인 부문의 지출액 비중(Y_u)과 GNP 총액의 기간별 변화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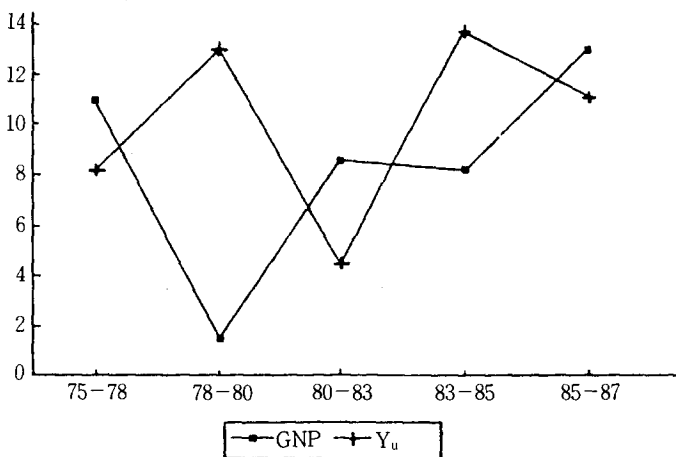
기 간	GNP연평균성장율	Y_u 비중연평균변화율	Y_u 연평균 성장율
1975-1978	10.88	-4.14	8.21
1978-1980	1.58	9.39	12.97
1980-1983	8.53	-3.66	4.53
1983-1985	8.12	2.82	13.71
1985-1987	12.94	-1.17	11.08

〈표 12〉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Y_u 와 GNP 간의 성장추세는 서로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78-1980년간은 그 전의 3년간에 비해 GNP는 저속성장을 한 반면 Y_u 는 더 높은 성장추세를 기록하였고, 다음기인 1980-1983년간은 거꾸로 GNP의 성장이 급속해진 데에 비하여 Y_u 는 다시 성장추세가 둔화되었다. 1983-1985년간은 GNP의 성장추세가 약간 감속된 반면 Y_u 는 다시 빠른 증가추세를, 그리고 1985-1987년간 두해동안

은 GNP가 고도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Y_u 는 상대적으로 둔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4>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비중이 경제성장과 갖는 역관계는 물론 단순한 단선적인 논리구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需要와 供給, 국내외의 여러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비중증대가 가치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문의 자원배분을 뜻하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국민생산량의 증가추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분명하다.

<그림 4> Y_u 변화율과 GNP 성장율간의 관계



아울러 한가지 더 추가할 사실은 여기서 정의한 비생산적인 부문의 역할이 가치의 생산과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산업이 생산을 유발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인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문이 차지하는 경제성장예의 기여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비생산적인 부문은 대부분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데 45부문으로 전산업을 나누었을 때 비생산적인 부문이 가치에서 차지하는 순위와 생산유발계수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15) 이를 위하여 順位相關係數(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보면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구해진다. 각 년도마다 相關度 $\beta=0$ 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게 되면서 양자간의 관계가 비교적 높은 정의 相關度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위상관계수	75년	78년	80년	83년	85년
r_s	0.82*	0.76*	0.75*	0.75*	0.76*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은 대부분 生産誘發係數가 낮은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므로 실제 성장의 추세와 갖는 負의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이거나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V. 결 론

위의 견해들은 가치범주를 상정한 것이지만 가격범주에서도 비생산적인 부문들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관련부문과 소비관련부문의 구분을 통해 이들이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계속된 70년대에 걸쳐 生産關聯部門의 비중이 계속 확대일로에 있었고, 이후 80년대에는 消費關聯部門의 비중 축소가 멈추고 서서히 증대하는 反轉現象마저도 있어 80년대 후반기의 소비욕구 분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아울러 소비관련부문의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경제성장율에 부정적 관계를 가짐도 보여준다. 가격범주에서 택한 또 하나의 기준은 生産誘發係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부문의 주기적 변동은 경기변동과 어느정도의 時差를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몇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이제까지 부가가치의 총합인 GNP만의 성장을 목표로 할 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의 생산 증대를 그 목표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본 논문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생산과정과 결부되어 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비생산적인 부문은 엄연히 다른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비생산적인 부문의 성장은 경제성장에 긴요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해 과도한 수준 이상으로의 후자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소비, 투자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도 일원적인 접근을 피하고, 무엇보다 생산유발계수가 낮으면서도 소비관련 부문에 속하는 서비스산업들에 대해 집중적인 억제책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소비성서비스

16) 拙稿(1992-2), 제3장을 참조할 것.

산업의 비대한 성장은 생계비수준을 높이고 물가상승까지도 주도할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본질상 비생산적인 부문은 추세적으로 증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하에서의 성장은 그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할 여지를 남긴다. 즉 통계자료를 『산업연관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연구의 특성상 분석시기가 통계적 유의성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 길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인 자료의 보완을 시도함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동태적으로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韓國銀行, 『産業聯關表』,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5, 1986, 1987, 1988년.
2. 朴俊卿, 金政鎬, 「韓國經濟의 多部門 模型: 模型構造와 推定結果」, 『韓國開發研究』, 第12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90 겨울.
3. 徐翰錫, 「맑스주의 경제학의 제반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현상과 인식』, 제15권 3호(통권53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1 가을, 126-157쪽.
4. 李兌洙, 「생산적 노동론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재음미」, 『현상과 인식』, 제 15권 1호 및 2호 (통권 52호), 한국인문사회 과학원, 1991. 5.
5. ———, “剩餘價値率의 推計와 生産的 勞動”, 『産業과 經營』, 第29卷 第1號 (通卷 第54號), 延世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1992-1, 123-138쪽.
6. ———, 『韓國經濟의 非生産的인 部門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2.
7. 丁聲鎮, 『韓國經濟에서의 마르크스比率의 分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 洪 薰, 「맑스경제이론의 두가지 축 : 노동가치설과 내적 논리」, 『현상과 인식』, 제15권 3호(통권53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1 가을, 9-49쪽.

9. 飯盛信男, 『サ-ビス經濟論序說』, 九州大學出版會, 1985.
10. 阿部照男, 『生産的勞動と不生産的勞動』, 新評論, 1987.
11. 戸田愼太郎, 『現代資本主義論』, 大月書店, 1979.
12. Baran, P. A. and P. Sweezy, *Monopoly Capital*, New York : Modern Reader Paperbacks, 1966.
13. Becker, James F., *Marxian Political Economy : An Outl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14. Delaunay, J. C. and J. Gadrey, *Services in Economic Thoughts : Three Centuries of Debate*, Massachusett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15. Marx, K., *Capital* I, II, III, Penguin Books, 1978.
16. ———, *Theories of Surplus Value* I,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63.
17. Mosley, F., "Unproductive Labour and the Rate of Profit in the Postwar U.S. Economy," *Papers at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Accumulation and Profitability*, 1988.
18. Shaikh, A., "National Income Accounts and Marxian Categories," *New School for Social Science*, mimeo, 1978.
19. ———, "The Current Economic Crisis : Causes and Implications", mimeo, 1982.
20. Wolff, E., "Unproductive Labour and the Rate of Surplus Value in the United States 1947-1967", P. Zerembrica ed.,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1, 1977, pp. 87-115.
21. ———, *Growth Accumulation and Unproductive Activi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7.